

남구, 양림동 관광 '스마트 투어' 앱 서비스 제공

비대면 방식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의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4개국 음성으로 안내하면서 위치 정보까지 전송하는 안내지도도 포함한 스마트 투어 앱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남구는 "양림동을 방문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비롯해 양림동을 대표하는 인물 등을 비대면 스마트 방식으로 안내

하는 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림동 스마트투어 모바일 앱은 비콘을 이용한 블루투스 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으로, 관광해설사의 안내 없이 양림동을 자유롭게 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선보인 앱에는 방문객들이 양림동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

도록 ▲양림 문예길 ▲양림 100년 근대길 ▲광주정신 뿌리길 ▲추억 저장길 4개 테마 여행 코스를 제공하며, 각 코스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앱 이용자들은 이장우 가옥과 펍킨마을, 오웬기념각 등 양림동 안내 대표 관광지 12곳 가운데 각 관광지별 스탬프를 8개 이상 모으면 기념품도 제공하는 온라인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양림동 주변의 맛집과 숙소 등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양림동 관광지 중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코스 제작 및 여행후기를 기록할 수 있는 '나만의 코스와 여행노트' 메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스마트 안내 서비스 실시로 양림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동구,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 참가자 모집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문화 예술 축제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퍼레이드'의 핵심 콘텐츠인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에 참여할 단체 및 개인을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잊을 수 없는 영화의 명장면'을 주제로 한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은 국내·외 유명 영화 명장면 연출, 추억의 레트로 감성 등을 내용으로 오는 10월 15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경연 참가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하다. 단체 부분은 퍼레이드가 가능한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 예술단체(음악·무용·연극·마임·퍼포먼스·무예·미술 등) ▲체육단체(태권도·무술·체조·오토바이·자전거·롤러스케이트 등) ▲동아리 ▲사회단체 ▲학교 단체 등이다.

개인 부문은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연인·친구·가족·동창회·소규모 기

업 등 10인 이하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고 참가 방법은 충장축제 누리집(www.donggu.kr/cjf)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cjfest1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한 참가자들은 팀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 받게 된다.

동구는 시민평가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퍼레이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팀을 선정해 대상 1팀(2천만 원), 최우수상 1팀(1천만 원), 우수상 1팀(500만 원), 장려상 1팀(300만 원) 등 총 5천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는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퍼레이드'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최고의 문화 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오는 10월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최근 3층 회의실에서 21개 부서의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실천계획 평가 안내와 공약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넓히고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리는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북구는 더 큰 도약과 확실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도시 ▲AI 거점 도시 ▲드론산업 활성화 ▲청년도약 도시 ▲소의 없는 포용복지 도시 ▲마을 브랜드화 ▲매력적인 관광 도시 ▲도시재생 혁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재난 안심 도시 등 44개의 공약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 실천계획 평가 소개'라는 주제로 불확실성과 대전환 시대의 도래, 매니페스토의 실체와 시민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등을 강연했다.

특히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자발적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44개 공약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행력을 확보한 후 10월 말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가 최근 송정2동·월곡2동·침단2동·수원동·임곡동 5개 권역에서 '광산구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민, 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를 비롯한 물과 전기 등 에너지를 덜 쓰는 실천 수칙을 홍보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 실시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매월 넷째 금요일 진행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송정2동·월곡2동·침단2동·수원동·임곡동 5개 권역에서 '광산구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민, 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적정 실내 온도(여름철 25~28℃) 유지하기를 비롯한 물과

전기 등 에너지를 덜 쓰는 실천 수칙을 홍보했다.

광산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광산구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 앞으로 매월 캠페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 교통, 탄소흡수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5개 권역 현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기후위기대응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서구,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제출, 누구나 참여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구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실현을 통해 "함께 서구 우뚝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광주 서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8월 5일까지 서구특·국·민신문고·전자우편 등 온라인과 우편·방문·팩스 등 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원, 장려상 6명에 각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기획실(062-360-70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